

# [단독] 최윤범 개인 돈 넣은 엔터회사에 원아시아가 따라 투자...감리위 안건 상정

입력 2026-03-16 17:04 | 수정 2026-03-16 17:16



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/ 사진=뉴스1

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개인 투자한 기업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사모펀드(PEF)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후속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.

16일 투자은행(IB)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가족과 함께 개인 재산을 출자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크미디어, 슬링샷스튜디오, 비스포크랩, 하이햇 등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회사 4곳에 총 320억원을 투자했다. 최 회장의 투자가 집행된 지 1~2년 후 원아시아파트너스는 동일한 회사에 순차적으로 800억원을 집어넣었다. 최 회장과

고려아연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중소 드라마 제작·연예기획사로 고려아연의 본업인 비철금속 제련업과는 이렇다 할 연관이 없다.

최 회장이 사적으로 투자한 회사에 고려아연도 투자했다면 이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간주된다.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해 주주들에게 투자 사실을 공시해야 하지만 고려아연은 이를 누락했다.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감리에서 이 같은 회계처리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오는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.

송은경 기자 [norae@hankyung.com](mailto:norae@hankyung.com)

© 마켓인사이트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---

프린트

닫기